

제3차 한-몽골 과학기술공동위원회 개최

- 14년 만에 개최한 제3차 한-몽골 과기공동위(7.8., 울란바타르) 통해 한-몽골 과학기술 협력 재개
 - 양국 간 인력교류 및 공동연구 추진, 광물자원 및 생명공학 분야 협력
 - 한-몽골 과학기술 포럼(7.9.)에서 연구자 간 네트워크 구축, 협력 기반 조성
- 【관련 국정과제】 26. 과학기술 5대 강국 실현을 위한 시스템 혁신**

과학기술정보통신부(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, 이하 '과기정통부')는 몽골 경제개발부와 함께 7월 8일(수),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14년 만에 “제3차 한-몽골 과학기술공동위원회”(이하 ‘과기공동위’)를 개최하여 양국 간 과학기술 협력을 재개하고, 부대행사로 7월 9일(목) “한-몽골 과학기술 포럼”을 개최하여 양국 간 과학기술 협력 기반 조성을 위한 연구자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.

양국은 1991년에 「대한민국 정부와 몽골인민공화국 정부 간 경제, 과학, 기술협력협정」을 체결하고, 2010년과 2012년에 양국이 교대로 과기공동위를 2차례 개최했으나, 그 이후 과기공동위를 통한 공식적인 교류가 없었던 상황이었다. 이번 국민방문을 계기로 과기정통부는 14년 만에 과기공동위를 개최하여 공식적인 과학기술 교류를 재개하고, 인력교류 및 공동연구 등의 과학기술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하였다. 이번 과기공동위는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과 몽골 경제개발부 자담빈 엔흐바야르 장관이 수석대표를 맡았고, 양국 정부, 연구기관 관계자 등 총 50여 명이 대표단으로 참석하였다.

이번 과기공동위를 계기로, 양국 연구기관 간 과학기술 협력을 위한 총 3건의 양해각서(MoU)를 체결했다. 분야별로는 ① 양국 간 과학기술 협력체계 구축을

위한 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- 몽 몽골과학원(MAS) 간 양해각서(MoU),
 ② 광물자원 분야의 협력을 위한 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- 몽 몽골과학원(MAS) 간
 양해각서(MoU), ③ 생명공학 분야의 협력을 위한 한 한국생명공학연구원
 생물자원센터(KCTC) - 몽 몽골과학원 생물학연구소(IB-MAS) 간 양해각서(MoU)가
 성사되었다. 이번 양해각서(MoU) 체결을 통해 양국 연구기관은 관련 분야의
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.

또한, 과기정통부는 7월 9일(목) 몽골 경제개발부와 함께 미래 양국의
 과학기술 협력을 이끌어 갈 연구자 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양국의
 산·학·연 전문가가 참석하는 “한-몽골 과학기술 포럼”(이하 ‘포럼’)을 개최하였다.
 포럼에서는 연구자들이 양국 과학기술 혁신 주체 간 협력 의제를 공유하고,
 양국 간 협력의 실질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양국 연구기관 간 협력 과제를
 모색하였다.

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“14년 만에 개최한 이번 과기공동위를
 통해 멈춰있던 한국과 몽골 간의 과학기술 협력과 교류를 재개하고, 향후
 양국 간 과학기술 협력을 활성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”라며 “몽골의
 역동적인 성장 잠재력과 천연자원을 한국의 과학기술 혁신 역량과 결합하여
 상호 호혜적인 과학기술 협력 성과를 함께 만들어 가겠다.”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과기정통부 미주아시아협력담당관	책임자	과 장	이경림 (044-202-4340)
		담당자	사무관	박민영 (044-202-4343)
			주무관	박종훈 (044-202-4349)



내일을 만드는 과학기술
 내상을 채우는 디지털·AI

대한민국
 정책브리핑

